

기록물의 개념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연구*

김정하**

1. 머리말
2. 개념의 역사적 변천: '장소'에서 '유기적 관계의 문서들 전체'로
 - 1) 공적 장소
 - 2) 장소의 법적의미와 공신력 그리고 신성한 성격
 - 3) Archivium: 장소와 기록물의 개념적 공존
 - 4) 계몽주의. 역사기록물
 - 5) 유기적인 관계의 문서들 전체
3. 현대 기록물관리. 용어의 문제
 - 1) 기록. 문서. 기록물
 - 2) Records(Management)와 Archives(Management)
 - 3) 정리와 분류
 - 4) 이관과 수집
4. 맺음말

* 본 연구는 2008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이다(KRF-2008-358-H00003).

** 대진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주요논저 : 『기록물관리학개론』, 아카넷, 2007;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관한 문건 소개」, 『고문서연구』, 2009; 「서양의 고문서 관리와 연구의 전통 -이탈리아의 'Historical Archives'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2008

[국문초록]

올해로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10년을 맞이한다. 그 동안 법, 제도 그리고 교육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빠른 성장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록물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실 개념에 대한 불충분한 연구는 한국의 경우 기록물에 대한 역사학적 관점, 정보학적 관점 그리고 기록물관리학적인 관점의 무질서한 공존을 초래하였으며 기록물관리가 학문의 한 영역으로 성립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archivium’은 기록물관리를 위한 장소를 가리켰으나 오늘날에는 ‘문서들 전체’와 문서들 내부에 형성된 ‘유기적 관계들의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로 발전하였다. 특히 후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기록물은 기록된 모든 것을 연구대상으로 간주하는 역사학의 사료와 구분되며 구체적인 의도(주제)에 따라 인위적으로 생산된 문서들이 제공하는 정보와는 달리 자연스러운 업무의 과정에서 생산된다. 뿐만 아니라 기록물은 현용, 준현용의 단계가 마감되고 영구보존 및 활용을 위해 선별되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즉 생산목적에 근거하는 역사, 문화적 가치가 지배적인 문서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 기록물관리는 역사기록물(archives)이외에도 현용, 준현용 단계의 문서들도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이러한 변화는 제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업무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한 복미 Records management의 전통에 근거한다.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는 지난 원년부터 복미 기록물관리 전통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러기에 기록물관리는 정보학의 과도한 영향 하에서 정리보다는 분류의 대상으로, 이관보다

는 수집의 대상으로 그리고 문서들 전체로서의 기록물보다는 기록된 모든 것(기록) 또는 문서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의 관리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으로는 기록물관리가 모든 매체에 기록된 모든 유형의 정보를 관리하는 기술(技術)일 뿐, 학문으로서의 위엄(dignity)과 관리의 효율성을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

주제어: 기록물관리학, 문서들 전체, 정리, 이관, 현대기록물관리, 역사기록물, 공신력

1. 머리말

우리나라 현대기록물관리는 올해로 10년의 역사를 뒤로 세로운 출발의 시점에 서있다. 그간 국가적으로는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에는 대통령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법적조치도 마련되었다. 근·현대사의 흐름을 살펴볼 때, 비록 단절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 기간은 체계적인 공공기록물관리의 부활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제도의 틀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관리대상 기록물의 영역이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국가(기록원)로 확대되었고 작년부터는 대통령기록관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흐름과 병행하여 기록물관리는 대학원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 및 교수되고 있으며 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많은 전공자들이 공사영역의 기록물관리 현장에 종사하고 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 볼 때 부족한 점도 없지는 않았다. 가장

먼저는 관리 영역이 정부에서 국가로 확대되고 생산주체와 기간이 크게 확장되었음에도 제도는 물론 업무영역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불균형의 교육제도와 커리큘럼도¹⁾, 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의 취약성도 그리고 기록물 관리이론과 메커니즘에 대한 관심이 Records management에 치중된 현실도 국가기록물관리제도의 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그간의 연구업적을 살펴보면 이러한 편중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요약하면 기록물관리정책의 방향성 상실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전자기록물의 등장과 관련하여 이미 비전자적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에도 전자적 관리의 원칙을 적용한 결정은 이러한 쏠림현상을 더욱 부채질한다.²⁾ 최근에는 정리(Arrangement)의 영역에서도 과거 십진분류의 경험과 정보학적 원리를 배경으로 기능분류에 대한 관심이 이론과 현장을 독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업무 진행에 따른 생산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문서들간의 질서, 즉 원질서(Original order)에 근거한 기록물정리의 원칙들(프랑스의 풍 존중의 원칙, 독일의 출처(Provenance) 존중의 원칙, 이탈리아의 역사방식 Historical method)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실전적 실험이나 집중적인 연구도 없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우리나라의 이러한 올인 현상은 상당히 예외적이다.

역사적으로 유럽은 지난 18세기 후반~19세기의 심각한 피해를 대가로 확실한 교훈을 얻었기에 주제별 및 기능별 분류

-
- 1) 서유럽국가들은 기록물의 정리와 관련하여, 생산기관의 역사와 제도를 연구하고 이를 기록물관리전문가(archivist)의 양성을 위한 주된 영역, 즉 특별기록물관리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 2) 이러한 쏠림현상과 관련하여 ISO-15489에 대한 맹신, 즉 기록물의 순차적인 가치들을 보장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기록물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의 개념과 원리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 신중론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의 궁극적인 원인이 역사가의 연구주체들에 해당하는 자료별의 원칙이었다는 사실과 기록물의 고유한 가치들이 정보학의 메커니즘을 통해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하여³⁾, 정보학을 Records management와 Archives management의 모든 영역에서 수단의 의미 그 이상으로는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의 기록물관리는 특히 제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볼 때 Records management의 절박한 현실에 근거하였으며 당시 도서관학에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큰 성공을 거둔 정보학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필요성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었을 뿐, 기록물의 순차적 가치들에 근거하는 제도적 해결방안은 아니다. 더구나 최근 우리나라에 무비판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미주 중심의 분류 및 가치평가에 관한 이론들은 그 대부분이 기록물관리에 있어 검증된 방법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럼 지난 10년을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쏠림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이 생산된 직후부터 순차적으로 획득하는 가치들의 보존과 활용을 조직하는데 필수적인 (기록물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였던 현실을 지적하고 싶다.

유럽의 경우, 해당 국가의 역사와 그 과정에 대한 연구 그리고 -특히 현대에 있어- 국가기록물의 공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요인이었다면, 기록물의

3) 기록물은 문서들의 전체 그리고 문서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의 전체로 정의될 때, 문서들의 질서가 제공하는 유기적인 관계의 정보들, 즉 순차적으로 그리고 계층적으로 생산된 문서들에 반영된 실질적인 문서생산의 구조, 즉 생산주체의 조직과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개념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관리이론 전반과 전문가양성교육에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기록물의 순차적인 가치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그 초점을 역사, 문화적 가치에 맞추고 있다.⁴⁾ 이러한 정책은 기록물의 개념을 ‘문서들이 제공하는 정보들 전체’와 ‘문서들의 질서가 제공하는 유기적 관계들의 전체’로 정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Archives를 문화재의 일부로 간주하는 유럽의 정책은 행정활동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문서들이 오직 이들에 반영된 생산주체의 제도와 역사를 기준으로 정리할 때 드러나는 정보들, 즉 문서들의 질서가 제공하는 정보들에 근거하며 이들이 영구보존의 비현용 단계로 선별되었을 때 비로소 세대를 반복하는 미래적 활용의 가치가 확보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한편 역사가 비교적 길지 않은 국가들, 특히 미국의 경우 20세기 초반의 실용주의 노선과 정보학의 기념비적인 발전은 기록물의 개념과 가치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한 정보적 관점을 강화시켰다. 이것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같은 국가들이 사실상 정보학을 바탕으로 현용 기록물 중심의 관리전통을 형성하고 있음을 암시한다(ex: ISO-15489, Dirks 등). 또한 최근에는 전자기록물의 확산을 통해 기능분류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면서 기록물 생산의 내적인 구조(또는 생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구조)보다는 외적인 요인들을 이용한 기술의 협력과 표준화에 집중하고 있

4) 2005년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 25개 국가들 중에 17개 국가가 국가기록물관리를 문화 또는 교육의 분야에 위임하고 있다(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몰타, 그리스, 핀란드). *Report in archives in the enlarged European Union, Increased archival cooperation in Europe: action plan*, European Commission, Luxembourg, 2005, p. 38.

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두 전통의 구성요인들에 대한 분석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이 보다는 기록물의 개념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으며 이것이 각각 기록물, 정보 그리고 사료의 관점에서 고려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기록물의 모든 가치에 대한 접근, 즉 보존과 활용으로 대변되는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보다 효과적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기록물의 개념은 이러한 맥락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가치들의 실현을 위한 제도 구축의 주춧돌로 활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기록물관리는 개념과 가치의 관점을 달리하는 유럽과 미국의 전통들 중에서 분명 후자에 치우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기록물의 개념과 가치의 활용에 대한 포괄적이고 충분한 연구가 동반되지 않았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그리고 교육의 현장에서 Records management가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기록물의 순차적인 가치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현주소가 과연 미래지향적인 것인지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2. 개념의 역사적 변천: ‘장소’에서 ‘유기적인 관계의 문서들 전체’로

1) 공적 장소

오늘날 기록물 또는 (기록물의) 관리장소를 의미하는 용어들

의 기원은 그리스어의 아르케이온(archeion, 또는 cartofilachion 또는 grammatofilachion)에서 유래한다.⁵⁾ 반면 라틴문명권에서는 archivium(또는 archivum), archium(또는 arcivum)이외에도 grapharium, cartothesium, chartarium publicum, sacrarium, sanctuarium, scrinium, tabularium과 같은 다양한 어휘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다양성은 이전 시대에 비해 문서들을 생산하는 행정제도의 발전과 기록물의 종류 및 기록재료의 다변화에 기인한다.⁶⁾

로마시대의 율피아노 도미치오(Ulpiano Domizio, AD 203-228)는 당시 기록물의 보편적인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⁷⁾

archivium est locus publicus in quo instrumenta deponuntur

Archivium은 공적인 장소(locus publicus)이며, 따라서 이곳의 문서(들) instrumentum(a)은 모두 공적인 가치를 획득하였다. 특히 이러한 공적가치의 메커니즘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개념인데, 탄원서나 진정서와 같이 개인이 관련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송한 후에 공적인 보존 장소에서 관리될 경우 공공기록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기원 후 4-5세기에는 공적인 성격이 더 이상 장소가 아니라 문서들에 부여됨으로써 생산주체의 영역이 이전에 비해 확대되었다.⁸⁾

5) Antonio Romiti, *Archivistica generale*, Civita editoriale, Lucca, 2003, p. 120.

6) 당시에는 그 의미가 보존용기나 보존 장소로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전자의 의미로는 archa, archarium, armarium이, 문서들 특히 공적인 성격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장소의 의미로는 tablinum, tabulinum, tabularium이 있었다(Ibid.).

7) 해석하면 “archivium은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는 공공장소이다”: cfr. B. Bonifacio, *De Archivi liber singularis*, apud Io Pinellum, Venetiis, 1632.

8) 해석하면 “archivium은 공공기록물이 관리되고 있는 장소이다”(E. Forcellini, *op.*, cit., ad vocem.)

archivium est locus in quo acta publica asservantur

이 경우 Instrumenta을 대체한 acta publica는 res gestae, 즉 보존 장소로서의 archivium에 보관된 기록물이 더 이상 낱장의 문서 들로만 국한되지 않고 당시 통치행정(또는 제도)의 발전에 따라 여러 기관들에서 생산된 다양한 문서들 또는 기록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⁹⁾

[Archivium est] locus in quo acta publica asservantur, ut fidem faciant

이처럼 고대의 기록물관리에서는 기록물에 비해 장소의 법적 기능과 성격이 더 중요하였다. 오늘날과는 달리 문서들의 가치와 신뢰성을 보장하는 제도나 수단들이 구체적이지 못했던 당시로서는 특정한 장소 또는 그 내부의 문서함들을 활용하는 것이 문서들의 법적 가치, 즉 원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다.¹⁰⁾

2) 장소의 법적의미와 공신력 그리고 신성한 성격

중세에도 고대로마의 archivium이 누리던 신성한 성격(Sacralita)은 thesaurum sacrum, sanctum scrinium의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유효하였다. 그리고 로마시대 archivium의 기능은 고대의 “ut fidem faciant”를 계승하여 중세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9) Antonio Romiti, *Archivistica generale*, p. 122.

10) G. Cencetti, “Gli archivi dell’antica Roma nell’età repubblicana” *Archivi*, s. II, 1940, pp. 7-47.

‘기억’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서의 *loca credibilia*로 발전하면서¹¹⁾ 군주의 권력과 관련하여 비밀 또는 기밀의 성격을 추가로 획득하였다.¹²⁾

11세기 로마법의 부활(법의 르네상스)이후에는 *archivium*의 개념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문서들의 조작성이 빈번하였던 당시에 고대 유산은 문서화에 대한 신뢰성, 즉 기록물관리의 현장에 서 문서들의 법적가치를 보장하는 것에 모아졌다.¹³⁾

이처럼 장소의 개념은 *archivium*의 존재와 문서들의 공신력에 있어 필수적인 요인이었다. 고대 로마의 법학자들은 비록 기록물이 역사적으로는 사기록물에서 시작되었지만¹⁴⁾ 단지 *archivium*의 공적인 성격만을 주목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전통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통해 중세로 계승되었다.

11) 한편 이시도로 디 시빌리아(Isidoro di Siviglia)에 의하면, 적어도 중세 전반기에는 이해관계가 큰 문서들의 보존을 위한 장소의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보존) 용기의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산드리는 이시도로의 이러한 발상이 정의의 차원에서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들과 정신적 구원을 위한 수단들을 모아 관리하려는 의도에 근거한다고 평가하였다. Antonio Romoti, *Archivistica generale*, p. 123.

12) “[*Archivium est*] locus ubi scripturae publicae ad perpetuam memoriam asservantur” (Cesare Baronio, *Annales ecclesiastici*, auctore Caesare Baronio, Sorano, e Congregatione Oratorii, E.R.E., Presbytero Cardinali Tit. SS. Nerei et Achillei et Sedis Apostolicae Bibliothecario..., tomus dicimus, Lucae, Tupis Leonardi Venturini, MDCXXLI, annali 591, n. XL(p. 520, col 2).

13) “publicum instrumenta dicitur quod de archivio publico seu armario producitur vel liber censualis in quo scribuntur census et liber annotationum, scilicet, quod confiteatur illus ex archivio publico esse productum”(Tancredi, *De ordine iudiciario*, III, 12; Sandri L. Il pensiero medievale intorno agli archivi da Pier Lombardo a San Tommaso, in “Notizie degli archivi di Stato”, a. XIV, n.1, Roma, 1954, p. 18.

14) 로마공화정 전반기에 사법기관의 기록물은 사법관의 사적인 문서로 간주되고 있었다. 다만 이후에 와서 사법관의 이·퇴임이 제도화되면서 문서는 이관의 규정과 더불어 *tabulae publicae*로 간주되어졌다. Giorgio Cencetti, “Gli archivi dell’antica Roma nella eta’ repubblicana” pp. 7-47.

3) Archivium: 장소와 기록물의 개념적 공존

16-17세기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출간된 연구서들은 archivium의 개념을 더 이상 장소의 의미로만 제한하지 않고, 이론과 현장 모두에서 문서들, 즉 기록물의 개념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연구를 종합하면 이하의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독일지역을 중심으로, archivium을 등록물과 구분하면서, 전자를 비현용단계의 문서들로 간주하는 경향이다.

둘째는 archivium을 영구보존의 가치가 있으며 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는 단계의 기록물로 정의하는 경향으로, 주로 역사가이며 동시에 기록물관리전문가(archivist)인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셋째는 이탈리아 기록물관리전문가들의 주장으로써, 위의 두 개념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archivium을 ‘하나의 전체’로 간주하는 경향이다.

Archivium을 문서들로 간주하려는 새로운 시도는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주체의 성격을 구분하는 경향을 동반하였다.¹⁵⁾ 그

15) 기록물의 공적인 성격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 하는 주장들은 이하의 다섯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기록물보존소에 “qui habeat curam et custodiam loci, Camerae et Archivi, in quo adservantur scripturae”하는 공공관리가 근무해야 한다.

둘째, 기록물관리전문가(archivist)는 이를 임명할 권력을 가진 상급자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

셋째, scripturae ponantur inter authenticas scripturas

넷째, 관습에 따라 기록물보존소에는 문서들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증명수단들을 확보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다섯째, 기록물보존소에 근무하는 관리는, 이곳에서 문서들이 밖으로 옮겨질 때에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기록물보존소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자신의 서명으로 입증한다.

결과 당시에는 생산주체의 공·사를 구분하면서, Jus archivi의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사적(私的) 영역의 문서들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개념에 대한 이중적인 고려는 이후 16-19세기를 거쳐 심지어는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대기록물관리의 실질적인 동기에 해당한다.

4) 계몽주의. 역사기록물

지난 19세기의 문화흐름인 계몽주의는 기록물을 조직하는 방법론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비록 기록물의 재정리 방식으로는 효율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백과사전주의에 근거하여 주로 내부의 유기적 관계가 훼손된- 역사기록물의 영역에서 가능성을 발휘하면서 역사가들의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 프랑스혁명과 시민의 열람권 보장, 기록물 재정리방식의 변화는 소속지 원칙을 대신한 출처주의 원칙의 등장과 더불어,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백과사전식 접근에 대한 비판은 한 세기 전인 18세기 독일의 에르하르트(H. A. Erhard)로 거슬러 올라간다. 브렌네커는 에르하르트의 발상을 비록 관련업무가 종결되었다고 할지라도 최근에 생산된 문서들을 기록물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독일학자의 주장을 가장 체계적으로 반박한 이탈리아 학자 엘리오 로돌리니(E. Lodolini)는 에르하르트가 기록물을 행정활동의 과정에서 생산되어 내부적으로 생산구조를 반영하며 역사적 상황들을 증언하는 문서들의 수집(collection)으로 정의함으로써, 기록물의 문화적인 측면에만 집중하고 (문서들의) 법-행정적인 관점(즉, 오늘날의 현용, 준현용의 기록물)을 간과하

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기록물보존소를 도서관과 유사한 문화기관으로 오관하였으며¹⁶⁾ 이로 인해 출처존중의 원칙을 거부하고 자료별 정리방식을 지지한 것의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시각에서도 에르하르트¹⁶⁾의 주장은 당시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정복을 경험했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던 -출처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된 채 오직 역사, 문화적인 가치만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기록물의 처리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한편 19세기말 프랑스에서는 문서들의 법적인 성격을 강조하던 경향이 수그러들었던 반면 문서들의 원본성을 보장하면서도 기록물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바라보려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학자인 랑글로이(Carlo Langlois)는 기록물을 국가, 지방, 도시, 공공기관 또는 사기관, 회사나 협회, 개인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원본문서들로 정의하였다. 오늘날 그의 정의는 생산주체를 공공분야로만 국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기록물의 생산 방식과 더불어, 문화적 기능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특히 전자의 이유(생산방식)로 인해 기록물을 서책과 박물관로부터 구분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같은 시기에 네덜란드의 기록물관리전문가들은 관리이론에 대한 연구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여 이후 유럽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사무엘 플러(Sanuel Muller), 요한 아드리안 페스(Johann Adrian Feith) 그리고 로버트 푸루인(Robert Fruin)의 연구는 프란체스코 보나이니(F. Bonaini)와 그의 제자들

16) Heinrich August Erhard, "Ideen zur wissenschaftlichen Begründung und Gestaltung des Archiwesens" Zeitschrift für Archivkunde, Diplomatie und Geschichte, 1, 1834; 김현진, 「독일 기록관리담론에서의 평가론」, 『기록학연구』, 제 47회 발표문, pp. 6-7.

(특히 살바토레 본지 Salvatore Bongi)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반면, 독일학자들의 이론과는 기록물관리의 여러 영역에서 대립각을 형성하였다.

네덜란드 학자들의 기록물에 대한 정의는 이전시대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이다. 그 요점을 살펴보면 기록물은 모든 권력 기관이나 행정 또는 이들의 관료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수발된 문서들, 도면들, 그리고 출판물의 전체로 간주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문서들이 자신들의 기능과 일관된 맥락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정의는 오늘날 기록물 개념의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5) 유기적인 관계의 문서들 전체

지난 20세기 기록물관리의 족적은 특히 당대의 기록물 정리 방식인 출처의 원칙과 이를 지난 19세기 후반에 혁신적으로 해석한 프란체스코 보나이니와 그의 후학들에 의해 대표된다. 이러한 이탈리아 학자들의 노력은 오늘날 ‘역사방식’으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역사를 위해서나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리의 근본원리를 역사에서 찾기 때문이다.¹⁷⁾

17) Antonio Panella, “Francesco Bonaini” *Rassegna degli Archivi di Stato*, a. XVII, n. 2, Roma, maggio-agosto 1957, pp. 181-197. 아르날도 다다리오의 보나이니의 역사 방식과 관련하여, 이것이 단순히 식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실이 아닌데, 왜냐하면 시리츠와 그 상위계층의 유기적인 비전에 있어 각 문서들의 가치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공법과 사법의 기관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인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Arnaldo D'Addario, “Archivi ed archivistica in Toscana negli ultimi anni” *Rassegna storica toscana*, a. I, n. 1, 1955, pp. 35-71, 특히 pp. 38-39 참조).

하지만 적어도 초기 30여년의 기간에 개념에 대한 정의는 이전세기의 여러 이론들과 비교할 때 별로 진전되지 않았다. 이 기간의 학술적 성과에서 반드시

하지만 20세기의 진정한 변화는 *Sull'archivio come universitas rerum*(1937)의 저자인 조르지오 첸체티(Giorgio Cencetti)와 지난 19세기 후반의 역사방식(Metodo storico)에 반영된 기록물의 개념을 재검토한 아돌프 브렌네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르지오 첸체티는 기록물을 정의함에 있어 생산주체, 문서생산의 양태 그리고 기록물이 존재하는 목적을 세 가지 기준으로 지목하면서 처음으로 ‘문서들 전체’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기록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과거의 전통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것이었다.¹⁸⁾

기록물은 기관이나 개인들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거나 자신들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신 또는 발신한 문서들 전체이다.

그의 정의에서 문서들 전체란 관련업무의 진행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모든 문서들의 전체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도 그 내부에 -업무의 진행에 따라-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최초의 ‘필요한 유대관계’들의 전체를 가리킨다.

한편 브렌네커는 기록물에 대한 정의에서 문서들이 생산에서 영구보존에 이르는 기간에 크게 두 개의 가치단계(‘비성숙

언급되는 에치오 세바스티아니(Ezio Sebastiani), 피오 페키아이(Pio Pecchiai)와 에우제니오 카사노바(Eugenio Casanova)의 연구는 몇 가지의 사실을 제외하고는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실제로 독일의 브렌네커는 기록물에 대한 카사노바의 정의를 분석하면서, 기록물을 수집의 개념으로 인식한 것, 역사-문화적 가치의 기록물과 현용단계의 기록물을 구분하지 않은 것 그리고 기록물의 목적을 정치적, 법적 그리고 문화적인 것으로 구분한 점을 비판하였다. 이것은 카사노바가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진보를 담보하기 보다는 역사-문화적 가치의 기록물과 자료별 정리방식으로 상징되는 한 세기 전의 관점에 안주하였음을 말해준다.

18) Antonio Romiti, *Archivistica generale*, p. 139.

된 기록물'의 단계와 '기록물'의 단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독일의 기록물관리전통을 계승하였다는 측면에서 그의 연구는 앵글로 색슨의 전통, 이탈리아의 전통과 더불어 유럽기록물관리의 흐름을 대표한다.¹⁹⁾

기록물은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실질적이고 법적인 활동에 근거하여 생산한 기록물과 그 외의 다른 문서들 전체인데, 이들은 문서자료와 과거에 대한 증거로서 특정한 장소에서 영구적으로 보존될 대상이다.

브렌네커는 첸체티와 마찬가지로 기록물을 문서들 전체로 간주하였지만, 수발의 양태라는 제한된 시각에 머물렀기에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 현용, 준현용의 기록물에 국한된 정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문서자료들과 과거에 대한 증거'라는 영구보존의 관점을 추가함으로써 기록물을 법, 행정적인 성격과 학문적인 성격의 공존(또는 흐름)으로 이해하였고 이로서 두 단계를 분리된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과거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였다.

기록물에 대한 정의에서 분질의 개념이 극복된 것은 정리작업에서 이들이 생산조직들의 이미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재통합될 수 있다는 발상, 즉 출처를 '자유롭게' 적용하는 원칙의 성립을 가져왔으며 기록물관리전문가에게는 등록물(registratura)의 생산에 '자유롭게'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다.²⁰⁾

19) Ibid., cit., p. 141.

20) 아울러 브렌네커의 정의에서 언급된 '기록물과 그 외의 다른 문서들 전체'의 표현은, 역시 독일의 학자인 레쉬(Leesch)에 의하면, 출처가 다양하여 분리 또는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문서들로 구성된 기록물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정리할 때도 출처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사시한 것이었

한편 20세기 중반에 영국은 여전히 로마법 전통에 머무르면서 기록물을 법적 가치와 공신력을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이론을 고집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영국의 대표적인 학자인 힐러리 젠킨슨(H. Jenkinson)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다.²¹⁾

기록물은 공사의 영역에 있어, 시대를 초월해 모든 업무 진행과정에서 자연스런 절차에 따라 축적되었으며 문서화 작업을 위해 관리되고 그리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책임자 또는 그 후임 자들에 의해 보존되는 문서들이다.

젠킨슨의 정의는, 로돌리니에 따르면, 이하의 몇 가지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²²⁾

첫째, 기록물은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따라서 학자는 이러한 문서들로부터 행정적 의미를 파악한다(Impartiality).

둘째, 기록물은 수집(기록물)과는 달리, 생산과정에 있어 자연스럽게 그리고 인위적이지 않게 축적되는데, ‘자연스럽게’의 표현은 문서들의 생산과정에는 물론 생산된 문서들 간의 관계에도 반영된다(Naturalness).

셋째, 원본성으로 이는 지속적 관리에서 기원하며 사실상 합리적 추론의 결과이다(Authenticity).

넷째, 상호의존(관계)성에 있어 기록물의 문서들은 다른 문서들과 이들이 속한 그룹의 내외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V. Giordano, *Archivistica e veni culturali*, Salvatore Sciascia Editore, Roma-Caltanissetta, 1978, p. 99).

21) Ibid., cit., p. 142; H. Jenkinson, *The English archivist. A new profession*, London, 1947;

E. Lodolini, *Archivistica*, pp. 119-120.

22) Ibid., p. 142.

(Interdependence).

영국의 기록물관리전통은 기록물의 개념, 특히 ‘문서들 전체’의 표현에 있어서는 적어도 남유럽의 전통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켈렌버그의 정의에서 언급된 ‘[...] 축적된 문서들’과 ‘상호의존(관계)성’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문서들의 축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만큼 남유럽의 전통에서 중요시하는 -첸체티가 주장하던- ‘문서들 전체’ 그리고 ‘그 내부의 유기적 관계의 전체’와 전혀 별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20세기 중반 미국의 기록물관리는 켈렌버그(T. R. Schellenberg)에 의해 대표된다. 역사적으로 그의 이론은 문서들의 조직에 있어 17세기의 이론들에 근거하였으며 아돌프 브렌네커의 영향을 받은 후에는 독일전통의 맥락에 안주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후 같은 세기에 있었던 두 번의 세계대전을 전후한 기간에는 이론의 경직성으로 인해 큰 지지를 받지 못하던 영국의 전통과는 달리 영어권 국가들의 기록물관리를 이끌었다.²³⁾

기록물은 공, 사기관의 문서들로서 문서화와 연구목적을 위해 영구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그리고 기록물관리 기관에 옮겨졌거나 또는 관리(영구보존 및 활용)을 위해 선별된 문서들이다.

켈렌버그의 주된 관심은 현용등록물도, 준현용등록물도 아닌 역사기록물에 집중된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기록물에 대한 정의에서 언급하였듯이 두 등록물 단계에 이어 선별의 과

23) T. Schellenberg,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Melbourne, 1956(1975년 시카고에서 재판됨).

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의미의 기록물, 즉 영구보존의 역사기록물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기록물관리의 현주소에 있어 쉘렌버그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부분은 보존의 명분이 문서화, 즉 문서생산의 목적에 해당하는 법적이고 행정적인 이유들과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에 근거하는 연구목적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첸체티가 기록물을 ‘유기적 관계의 문서들 전체’로 정의한지 10여년 후 안토니오 파넬라(Antonio Panella)는 기록물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기 보다는 하나의 ‘단일 이미지’로 특징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근본적으로 파넬라의 단일 이미지는 기록물 관리의 제도적인 틀이 순차적인 가치들에 근거하여 구분될 수는 있겠지만 생산된 기록물을 정리하고 활용하는 원리에 있어서는 불가분의 관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기록물의 정의에 있어 파넬라는 이들의 역사적 의미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평가하였는데(기록물과 생산기관의 역사적인 관계, 기록물의 구조에 기초한 본래의 목적 그리고 어느 한 기록물 *fond*와 구체적인 역사연구의 목적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척도²⁴⁾), 이 점에 있어서는 역사기록물의 가치와 활용의 비중을 강조한 쉘렌버그와 공통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쉘렌버그는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들에서 2차적 가치로서 정보적 가치, 즉 문서들 간의 유기적 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정보학적 가치를 수용함으로써 미주 기록물관리의 고유한 발전의 흐름을 증언하였다.

20세기 후반의 개념은 기록물이 공사영역의 구분 없이 생산되어 영구보존의 가치를 위해 선별되었으며 정리된 상태의 문

24) Antonio Panella, “Gli Archivi” Note introduttive e sussidi bibliografici, Marzorati, Milano, 1948, pp. 103-121.

서들 내부에는 유기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어 궁극적으로는 생산주체의 체도와 업무진행의 구조를 반영한다는 사실에 모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들은 같은 세기 전반에 소개된 첸체티의 이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전·후반기의 발전적인 연계성은 이후 레오폴도 산드리(Leopoldo Sandri, 1958), 레오폴도 카제세(Leopoldo Cassese, 1959)와 아우렐리오 타노디(Aurelio Tanodi, 1961) 그리고 아르날도 다다리오(Arnaldo d'Addario, 1972)를 거쳐 파올라 카루치(Paola Carucci, 1983)와 엘리오 로돌리니(Elio Lodolini, 1985)에 의해 현대 유럽의 전통에서 가장 보편적인 이론으로 그리고 관리를 위한 현장의 모범으로 집대성되었다.

오늘날 기록물 내부의 유기적 관계는 기록물관리의 전 영역에 걸쳐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관계가 정의상 중요한 관점인 생산주체와 목적에 있어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카루치는 이 점에 있어 기록물이 법, 행정적인 성격과 역사, 문화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주장함으로써 시대의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카루치가 주로 남유럽의 전통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면, 엘리오 로돌리니는 자국의 전통에만 머물지 않고 영국과 독일의 전통을 관통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이론을 형성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론에서 다른 무엇보다 문서들 간의 필요하고 구체적인 최초의 유기적 관계라는 원칙을 강조하였다. 이 점에 있어 그는 첸체티와 견해를 같이 하였다. 하지만 그는 문서생산의 명분에 해당하는 실제적이고 법적이며 행정적인 유용성이 종료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하면서도, 이러한 오리지널적인 성격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학문연구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원천으로 작용하며

이 때문에 기록물이 귀중한 문화재를 구성한다는 독자적인 논리에 있어서는 첸체티와 입장을 달리하였다.

로돌리니가 독일의 전통, 특히 브렌네커와 그리고 더 나아가 영국의 전통을 계승한 쉘렌버그의 이론에 동조하는 부분은 그가 업무, 행정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현용기록물과 준현용기록물의 용어보다는 현용등록물, 준현용등록물의 용어를 선호했다는 점 그리고 비현용기록물로 선별되기 전에 불필요한 문서들을 폐기하는 과정으로 준기록물(prearchivio)의 단계를 설정하였다는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로돌리니는 이탈리아의 보편적인 흐름과는 달리, 영국과 특히 독일의 전통을 수용하여 기록물 관리의 유일한 목적으로 역사, 문화적 관점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가 유일한 명분으로 지적인 역사, 문화적 관점은 그 시작이 법적, 행정적인 관점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 만큼, 적어도 정리의 과정에 있어서는 기록물의 다양한 가치들을 유일하고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하는 탄력적인 사고를 필요로 한다.

3. 현대기록물관리. 용어의 문제

정보화시대의 기록물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개념과 의미로 해석된다. 이것은 기록물관리의 영역이 과거 역사학, 고문서학 그리고 고서체학을 배경으로 시작된 이후 행정학, 법학 그리고 정보학과의 관계를 거치면서 현재의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성장한 배경을 말해준다. 유럽의 경우, 지난 19세기는 “문서생산의 역사와 기록물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형성한 정리의 형

태들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된 기록물 더미들을 정리하고 이들을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²⁵⁾ 기록물관리학이 성립된 원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18세기 말, 19세기 초 Diplomatico fiorentino(1778), Grande Archivio di Napoli(1808)와 같은 대규모 기록물관리조직들의 설립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게다가 이 기간에는 출처의 원칙, 품 존중의 원칙 그리고 이들을 근거로 이탈리아의 역사방식(Metodo storico)이 성립하였다. 그럼 18-19세기를 공통적인 배경으로 기록물관리학의 성립, 대규모 기록물보존소들의 설립 그리고 자료별의 방식을 대신한 새로운 정리방식들의 도입은 어떤 관계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자문에 대한 해답은 -본 논문의 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기록물관리학의 학문적 근거에 해당하는 (기록물의) 개념에 대한 정의에서 얻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기록물관리의 현주소에는 다양한 관점별 개념들이 공존한다. 특히 Records management의 경우 정보학의 관점이, Archives management의 경우 역사학, 법학 그리고 행정학의 관점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현대의 기록물관리학은 주변학문들과의 관계에 있어 더 이상의 개념적 혼란을 겪지 않는다. 관리대상인 기록물을 기록된 모든 기록으로부터 구분하는 개념과 가치가 명확한 것이 그 이유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록물관리학과 더불어 주변학문들 모두의 학문적 발전을 장려하고 기록된 과거와 단절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기록물관리학의 경우에도 학문적 성립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25) 2009 International Workshop Program, The Society of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2009.03.12-13, Giorgi Andrea, *Discipline del libro e del documento: archivistica, biblioteconomia, diplomatica e paleografia*, cit., p. 116.

위해서는 관리의 기준과 영역의 한계를 설정하고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범주 내에서 용어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어는 그 의미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만큼 적용대상과 범위에 있어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 용어의 개념과 정의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관리대상 기록물의 생산주체와 목적인데, 이들은 기록물관리 전반에 있어 보편적인 기준이기도 하다. 왜 그리고 어떻게 문서들이 생산되었는지를 파악한다면 이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가능한 모든 가치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기록. 문서. 기록물

모든 기록이 문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듯이, 모든 문서 역시 기록물로 정의되지 않는다. 기록된 모든 것이 넓은 의미의 문서로 불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산주체의 자연스런 행정활동 과정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일기나 연대기의 기술(記述) 또는 문학이나 다른 학문영역의 필사본이 문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것도 기록물관리학의 기록물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이고 행정적이며 법적인 활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축적되고 그 과정에서 문서들 사이에 고유하고 필요하며 구체적인 관계, 즉 유기적인 관계들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전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수집된 문서들, 낱장의 문서들, 도서관의 도서들, 화랑의 그림들 그리고 박물관의 박물은 기록물에 포함되지 않는다.²⁶⁾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도 기록물의 근본 개념은 동일하게 적

용된다. 왜냐하면 문서들의 질서와 이 질서에 의해 형성된 -문서들 간의- 관계들 전체는 매체의 변화에도 수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문서들의 합 또는 단순한 database의 수집물에 불과하다.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에는 오직 매체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²⁷⁾

기록과 기록물의 개념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 기록물관리를 위한 연구를 가리키는 학문의 용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기록학’ 또는 ‘기록관리학’은 본 연구의 관점, 즉 기록된 모든 기록이 기록물관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할 때, 적절한 표현은 아니며 ‘기록관리’의 용어는 기록물관리로 바로잡아야 할 대상이다.

이처럼 기록된 모든 기록이 기록물관리학의 대상은 아니다. 이 점에 있어 (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기록물관리학과 (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학은 정보의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공통되지만 정보의 성격과 개념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과거 도서관학과 정보학의 협력관계는 기록물관리학과 정보학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기록물이 어휘나 언어의 표현이외에 문서들의 질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추가로 가지기 때문이다.

정보들의 성격적 차이는 기록물관리학과 역사학의 관계에서

26) 김정하, 『기록물관리학 개론』, 대우학술총서 n. 585, 아카넷, 2007, pp. 24-25.

27) 기록물관리의 영역에 정보학을 도입하는 것은 전통적인 매체의 문서들에 작성된 기록물에 정보학 수단을 적용하는 경우, 기술적인 보조수단의 용도인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다. 다만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직접 전자적으로 생산된 기록물에 정보학의 원리들을 적용할 때 발생한다. 기록물관리학의 영역에 대한 정보학 학자들의 독점이외에도 기록물관리학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방법론들의 적용을 의미한다.

도 드러난다. 후자는 기록된 모든 것, 심지어 구술기록에서도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다. 반면 전자는 -역사학에서 사료(史料) 또는 1차 자료로 정의하는- 역사, 문화적 가치가 지배적인 기록물의 범위 내에서 생산주체의 제도와 구조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같은 맥락에서 기록물보존소에는 전문도서관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곳의 도서관은 일반 도서관이 다양한 분야의 출판물을 소장하는 것과는 달리 -1차 자료의 관점에서 기록물을 연구한 모든 결과물들 이외에도- 기록물은 아니지만 역사적 가치가 높은 연대기나 일기 등과 같은 과거의 기록들을 소장하여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2) Records(Management)와 Archives(Management)

학문 영역의 성립에는 관련용어들이 가지는 의미의 정확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기록물관리에 대한 연구도 지난 18세기 말의 역사적인 변화들(특히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행정개혁)을 계기로 용어와 개념에 있어 지속적으로 진화하였다.

오늘날 기록물의 용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첫째는 문서들이 생산부서에서 작성된 순간부터 기록물로 불린다는 것이고, 둘째는 부서의 생산목적이 종료되고 영구보존을 위해 선별되었을 때 비로소 기록물로 불린다는 주장이다(Archivwürdigkeit). 물론 후자의 기록물은 보존을 목적으로 생산부서 또는 기관으로부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다.

두 이론은 성격상 타협될 수 없으며 단순한 명칭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전자의 이론을 대표하는 조르지오 첸체티(G. Cencetti)는 이론적으로 “단순히 말

해 모두 기록물이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에른스트 포스너(Ernst Posner)와 같이 두 번째 이론에 충실한 학자들은 기록물을 대신하여 등록물의 용어를 사용한다.²⁸⁾ 반면 독일어의 Archiv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Archivio storico, 즉 역사기록물에 해당한다.

영어권 국가들, 특히 영국에서 Records와 Archives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두 용어에 있어 이들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H. 젠킨슨)과 “연구목적에 의해 영구보존의 가치로 판단되었으며 전문기록물관리기관에서 관리하기 위해 선별된”²⁹⁾ Records만이 Archives라는 주장(T. R. 쉘렌버그)이 양립한다. 그러나 영국의 각 지역들에서 제정된 기록물관리법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최근에 들어 젠킨슨의 주장과는 다르게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종합할 때 Records는 생산기관(또는 부서)의 실질적이고 법, 행정적인 목적에 따라 생산되어 관련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현용과 준현용 단계의 기록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Archives는 참고적인 용도마저도 충분히 소멸되고 선별된 후에 영구보존과 활용을 목적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비현용기록물을 가리키는 용어로 타당하다. 한편 이러한 용어들이 생산 목적에 따라 구분된 것이라면, 가치에 기준할 때 현용, 준현용 단계의 기록물은 -각각은 업무기록물과 참고기록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행정기록물로, 비현용단계의 기록물은 역사, 문화적 가치가 지배적인 단계의 기록물, 즉 역사기록물로 정의

28) 등록물은 이탈리아어에서는 registratura, protocollo, 독일어에서는 registratur (kurrent, laufende, tägliche Registratur)를 의미한다.

29) “which are adjudges worthy of permanent preservation for reference and research purposes and which have been deposited or have been selected for deposit in an archival institution”.

될 수 있다.

Records의 용어는 1950년 미국 연방정부의 문서관리를 위한 공식용어로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에는 부서들에서 생산된 순간부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될 때까지, 즉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문서들의 운영을 조직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시스템 차원에서 도입되었다.³⁰⁾ 이 용어가 도입되었을 당시 유럽, 특히 프랑스와 불어권 지역들에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용어가 부재한 상황이었지만 얼마 후 캐나다에서 *gestion des documents*로 번역된 이후에는 유럽 국가들의 기록물관리법 등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³¹⁾

ICA의 용어집을 보면 Records는 “형식이나 매체에 상관없이, 개인이나 조직(민간, 공공)이 법적 의무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접수, 보유, 사용하여 증거를 제공하거나 증거의 일부를 구성하는 문서들”로 정의되고 있다. ISO-15489에서도 “기관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의 수행이나 업무의 처리행위 속에서 증거와 정보로서 생산하고 접수하며 유지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두 정의에서는 문서들이 생산기관과 생산목적의 두 관점에서 볼 때 모두 법, 행정적인 목적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 관련 업무에 활용되고 있거나 참고 목적으로 생산부서(또는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Archives는 관리의 주체와 목적(그러므로 가치의 활용)에 있어 Records와는 확실한 차이를 드러낸다.

30) 『기록물관리학개론』, pp. 40-41.

31) 북미에서 활동하는 이탈리아 출신의 루치아나 두란티(Luciana Duranti)와 프랑스의 찰스(Charles Dolla)에 의하면, 이 용어는 이미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앞의 책, p. 40 그리고 주 31 참조)

3) 정리와 분류

업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문서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들을 현재와 미래를 위해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에 직결된 만큼, 기록물관리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따라 그 가치의 효율성이 결정된다.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원질서(유지 및 재구성)의 원칙’, ‘풍 존중의 원칙’, ‘출처의 원칙’ 그리고 생산기관 제도의 역사에 근거하는 ‘역사방식’의 근본적인 목적은 문서들의 가능한 모든 가치를 관점과 시대를 초월하여 활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질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 정리의 원리는 그 대상인 기록물의 개념에 직결된다.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정리의 원리는 문서들이 생산된 당시에 획득한 고유한 질서, 즉 논리적 질서(또는 위치)에 해당하는 원질서이다. 원질서를 선택하는 것은 기록물이 삶의 활동(그러므로 행정활동)에 대한 자연스런 -기록된- 결과로서 현용, 준현용, 비현용의 단계를 거치면서 순차적으로 획득하는 가치들을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이다.³²⁾ 또한 이러한 일련의 방식들은 자료별 방식이나 주제별 방식과 비교할 때 극단의 평가로 엇갈린다. 원질서의 경우에 정리의 기준이 기록물 내부에서 모색된 것이라면, 반대로 자료별의 기준은 정리대상 기록물과는 무관하게 선택되었기 때문에 기록물의 가치와 그 활용은 시기적으로나 관심영역에 있어 한계를 가진다.

32) 제 12차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회의, 몬트리올, 1992년 09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리’와 ‘분류’의 두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4년에 제정된 ISO-15489를 참조하면 분류(classification)는 “논리적으로 구조화된 체계와 방법에 따라, 분류체계에 제시된 절차 규칙에 따라 업무활동이나 기록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각 범주에 배치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³³⁾ 이 정의에서 분류체계는 같은 텍스트 9.5.2의 업무분류체계를 참조할 때 조직의 업무활동 분석에 기반하며 조직의 업무를 반영하는 것, 즉 업무의 활동으로 각 문서들에 부여된 질서들을 -정보학의 용어들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도서관의 도서 분류와는 다른 맥락이며 그 중심에는 조직의 업무활동이 자리한다. 분류의 용어가 정보학과 기록물관리학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기록학 용어사전』을 보면 분류는 “기록을 조직화하고 내적인 질서를 부여하여 기록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기술되어 있다.³⁴⁾ 이것은 정리의 개념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정리와 분류가 같은 의미로 그러나 다른 어휘들로 설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더 지적한다면 첫째로 내적인 질서는 분류(즉, 외적인 기준들)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등록)직후에 자연스럽게 부여되는 것이며 사전에서의 분류는 이러한 내적인 질서들의 전체, 즉 문서들 전체를 조직화하는 것이다. 둘째로 사전에서는 정리를 ‘비현용 기록의 분류’로 전제하면서 “(기록분류)를 실제 생산이전의 사전적이고 선형적인 과정”으로, 정리는 “생산된 기록에 대한 사후적이고 경험적인 과정”으로 기술하였다.³⁵⁾ 하지만 기

33)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표준 시리즈 1, 기록관리 국제표준 자료집, pp. 13, 34.

34)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 사전』, 용어 분류 참고, pp. 130-131.

35) 같은 책, pp. 130-131.

록물에 있어 정리는 분류와는 달리 결코 사전에 설정된 틀 속에 분배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주로 미주와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등을 중심으로 기능분류가 생산주체의 제도와 역사에 근거한 정리방식의 대안으로 실험되고 있다. 기능은 조직과는 다른 의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문서관리규정에서 유래한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나 조계종 등의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록물을 조직하는 원리에 있어 궁극적으로 자료별 분류의 원칙과 흡사하다. 기능 분류는 생산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들, 즉 문서들을 내용적으로 그리고 대, 중, 소의 단계별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생산기관의 조직구조와 그 조직의 기능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더구나 우리가 선택한 기능의 영역들이 현재의 관심과 관점에 근거할 뿐, 미래의 후손들과 이들이 가지게 될 새로운 관점들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분명 기록물관리의 미래지향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부정적인 결과는 우리가 아닌 미래 세대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기록물에 있어서는 정리이고 도서관의 도서들에 있어서는 분류인가? 그 해답은 이들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들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의 가치가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는지를 살펴봄으로서 알 수 있다.

두 방식은 관리대상의 용이하고 효율적인 활용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목표를 추구한다. 하지만 가치에 있어서 기록물이 주기론에 근거하여 (현용, 준현용 단계의) 법, 행정적인 가치와 (비현용단계의)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가진다면 도서는 출판이후 일관된 문화적 가치만을 유지한다. 그 외에도 두 방식의 가치 활용을 위한 (정리 또는 분류의) 방법론을 고

찰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실로는 정리가 작업이 추진된 당시는 물론, 미래의 가능한 모든 관점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반해 분류는 문화적 접근을 위한 관점들이 외적인 요인들의 범위에 국한되지만 이것으로도 가치의 충분한 활용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키워드 시스템, 시소러스(Thesaurus) 등의 도서 관리시스템을 기록물의 정리에 적용한다면 정보 또는 단순정보들의 합(합, database)은 검색될 수 있겠지만 도서들과는 달리 문서들의 질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록물의 개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들의 가치는 모두 정보이지만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는 입체구조와 평면구조(Database)의 차이를 드러낸다. 기록물의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형성된 입체구조인 이유는 이들이 생산된 직후, 고유한 논리적 위치(Logical position)를 획득하며, 이들이 관련업무의 자연스런 진행과정에서 생산주체(조직)의 계층적 구조에 근거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기록물이 생산기관의 제도와 역사를 반영한다는 논리는 바로 이러한 설명에서 기원한다.

결론적으로 문서들에 논리적인 체계를 부여하는 것을 정리 작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기준으로 기록물 내부에 존재하며 결코 변하지 않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기존의 질서(최초의 유기적 관계)들이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도서는 다른 책들과 함께 서가에 배치되었을 때 비로소 최초의 질서를 획득한다. 하지만 이러한 도서들의 질서는 서로간의 관계에 있어 결코 내적인 관계망에 근거하지 않으며 오히려 외적인 요인, 즉 주제들의 틀에 따라 분류된 것일 뿐, 문서들이 서로의 관계에서 형성하는 유기적인 관계의 전체와는 무관하다.

4) 이관과 수집

기록물의 개념에 대한 현대적 해석은 일반적으로 그 의미의 영역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 기록물은 생산주체의 법, 행정적인 목적으로 생산되어 업무에 활용되고, 유사업무를 위한 참고의 단계를 거친 후에 공식적인 이관의 절차에 앞서 선별된 후에도 내적으로 계층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문서들을 가리킨다. 반면 넓은 의미로 본다면 기록물에는 역사, 문화적 가치로 인해 수집된 문서들, 즉 Manuscript collection도 포함된다. 이러한 문서들은 기록물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기록물로 간주되기 보다는 역사적 가치가 지배적인 사료(史料)로서의 가치를 더 크게 가진다. 유럽의 경우, 역사적 가치의 Manuscript collection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들에 현존하는 것은 과거 18-20세기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기록물보존소를 유사학문영역의 문화기관들로 간주하였던 결과이다.

이러한 수집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찾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기록물(Archives)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수집기록물이 생산당시에 형성된 내부의 유기적 관계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관된 기록물과 함께 정리되거나, 기록물보존소의 ‘기록물 총목록집’(Inventarium generalis)에 통합적으로 기술(記述)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관(移管)을 ‘물리적·법적 차원의 이송’(移送)으로 정의하고 있다.³⁶⁾ 이송은 구체적인 대상을 한 장

36) 같은 책, p. 17.

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물리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사전적 의미로서 기록물관리에 관련한 그 어떤 이론적 전문성도 내포하지 않는다. 반면 이관(移管)은 대상 기록물을 그 내부에 형성된 원질서들의 관계망을 훼손하지 않고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다양한 활용의 취지에 따라, 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다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절차에 따라 옮겨가는 작업을 의미한다. 『기록학 사전』을 보면 후자의 의미는 유기적 컬렉션(Organic collection)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집의 인위적 컬렉션(Artificial collection)은 “어떤 의도에 따라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모은 기록 컬렉션”, “생산자가 설정한 원래의 질서 보다는 수집자가 편성한 주제, 혹은 기타 검색이나 이용 상의 편의에 따라 정리된다”.³⁷⁾

이관과 수집의 용어 문제는 그 동안 정보학에서 사용하던 수집의 용어를 그 개념에 대한 별다른 여과 없이 기록물관리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하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정보학에서는 분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집-관리 및 활용의 대상에 대한 내적인 고찰과 그 결과로 얻어진 원리에 근거하기 보다는- 외적인 기준 또는 사전 설정된 기준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대상을 확보하기 위한 이론 및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 기록물관리학에 있어서는 수집의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가? 그렇지 않다. 다만 수집물은 그 관리에 있어 이관 기록물의 그것과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것이다. 기준, 양도 또는 구체적인 필요성에 따라 수집된 문서들은 그 수량이 적을

37) “생산자가 설정한 본래의 질서...”의 경우 질서는 생산자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행정활동에서 비의도적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인위적인 컬렉션의 경우 대상의 내부에서 기준을 찾은 정리의 개념보다는 그 반대의 개념인 분류가 비교적 정확한 표현이다.

경우 제본된 형태로 기록물보존소 내의 도서관에 옮겨지거나, 역사적으로 같은 지역권에 위치한 도서관에 의해 주로 수집되었다. 우리의 경우 수집된 문서들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대표적인 사례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이다. 이 문화기관은 민주화라는 역사적인 주제에 입각해서 관련된 모든 형태나 유형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기념하고 있다. 이 기념사업회가 수집한 문서들은 생산(주체)기관들이나 출처가 극히 다양하고 각 출처별 문서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 내부의 유기적 관계를 상실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서들은 주제별 수집활동의 결과이며 제한된 역사-문화적 가치만을 가질 뿐 역사기록물로서의 다른 가치, 즉 유기적 관계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은 보장하지 못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문서들은 활용을 전제로, 결코 생산당시의 원질서에 근거하여 정리될 수 없으며 -그러므로 문서들 간의 유기적 관계가 제공하는 정보는 배제된 채- 수집 주체의 차선적인 판단에 의해 주제별로 분류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서들에 기록물 또는 문서의 용어를 적용한다면 적어도 ‘수집기록물’, ‘수집문서들’의 표현은 가능하다.³⁸⁾

4. 맺음말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록물관리학의 영

38) 유럽에서도 ‘주제별 기록물’에 대한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소련의 ‘문학과 예술 기록물’과 프랑스의 ‘건축 기록물’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Valerie Koba, “Les archives de la litterature et de l’art”, Actes de la seizieme conference internationale de la Table ronde des Archives, Kiev, 1975).

역에서는 주변학문의 전문용어들이 개념에 대한 검증 없이 혼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가 정보학과 역사학의 토양에서 배양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행정활동의 투명성을 목표로 기록물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 그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럼 이러한 현실에서 올바른 기록물관리, 즉 기록물만이 가지는 가치들의 관리는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가능할 것인가? 우선적으로는 전문용어들의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다. 이는 기록물관리학의 정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변학문들의 발전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또한 해당 학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접근은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며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구체적인 협력의 접점들이 모색될 수 있다.

전문용어의 선택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생산주체와 생산의 목적을 이해하고 다양한 가치들에 근거하는 일관된 원칙을 수립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정리의 문제는 기록물의 가능한 모든 가치들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을 보장하는 것이며 동시에 미래에 대한 배려이다.

기록물관리학에 있어 기록물은 문서들의 전체이며 또한 문서들 내부에 형성된 유기적인 관계들의 전체이다. 만약 첫 번째의 조건만을 강조한다면 문서들의 내용, 즉 정보는 자료별 또는 지난 18세기에 도입된 소속지 원칙의 근거에 해당한다. 이 경우 기록물은 정보학의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전락한다. 그러나 두 번째의 조건을 함께 고려한다면 기록물은 문서들의 수집에서 벗어나 생산기관의 제도와 그 제도의 역사에 대한 유기적인 정보들을 제공한다. 기록물관리학은 바로 이러한 유기적인 정보들의 가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이론이며 동시에 현장의 경험이다.³⁹⁾

한편 역사연구의 기록물은 기록된 모든 것으로, 과거에 대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록과 결코 다르지 않다. 오히려 후자, 즉 기록의 용어가 더 적절해 보인다. 이처럼 역사학과의 관계에서 -기록물관리학의- 기록물은 -각 문서들의 내용을 통해- 과거에 대한 단순 정보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서들의 유기적인 관계들 전체를 통해 다양한 접근경로(주제)를 보장하고 또한 이를 통해 과거의 재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본 논문은 -특히 제 3장의 내용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분류, 수집, 기록의 용어에 대한 무조건적인 금지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용에 있어 이관과 수집을, 정리와 분류를 그리고 기록, 문서 기록물을 학문영역에 따른 고유한 개념의 수립 및 적용에 근거하여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기록물관리는 정보학, 역사학, 행정학 그리고 법학의 다양한 관점들이 혼란스럽게 공존하는 공통의 일반영역에 불과할 뿐이며 학문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 어찌면 바쁘게 지내온 지난 10년의 성과를 정리하기 위한 이후 10년의 첫 번째 과제일 것이다.

39)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웰렌버그의 정보적 가치는 반기록물관리학적인 가치에 해당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 of Records-Archives and on the Definition of Archival Terms

Kim, Jung-Ha

It has passed ten years since modern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our country launched. During times, it has dramatically developed in the fields of law, institution and education. However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records and archives was non be studied enough compared to development of various research fields.

In fact the reason why study on the definition was non fulfilled is that some aspects such as historical, informational, archival perspective have been coexisting without order in Korea. This situation is the biggest barrier that archival science is to a disciplinary field.

Historically, ‘archivium’ in Latin language had developed in starting of its means place, then whole entity of documents and those organic relations. In this point, archives is rigidly separate to material of Historical science which covers all of recorded. Unlike information which is produced in the process of intended themes and following its outputs like books, documents in archival science is made in the natural process of work. In addition, historical archives which finished the current and semi-current stage and transfer to the institute of permanent conservation after the process of selection so that it is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to satisfy its

purpose of making. This changed trend is based on the Second World War and necessity of North American society which needs to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work.

In Korea,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has been dominantly affected by North American society and become a subject of not arrangement but of classification, not of transferring but of collection. It is also recognized as management of on formation on the all recorded or documents not as an whole documents and all organic relations. But the original type of recognition is the only technology, it cannot have dignity as a field of science.

Key words: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management, Historical archives, organic relation, Arrangement and classification, Transfer and collection, Fides publica.